

㫃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 考

韓 延 錫*

<目 次>

I. 序言	字形演變
II. 㫃이 根源聲符인 형성자의 漢語 文字 學的 考察	3. 㫃과 이를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의 音韻考證
1. 㫃의 字源과 字形演變	III. 結語
2. 根源聲符가 㫃인 형성자의 字源과	

<국문초록>

㫃(깃발 언)은 갑골문에서 𠄎으로 썼다. 깃발이 필력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 本義 ‘깃발’을 나타내었다. ‘㫃’을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는 거의 대부분 자형 ‘㫃’ 대신 韓(韓), 翰, 幹, 韃, 韃, 幹 등처럼 1차 형성자 韃의 자형으로 구현되고 있다.

㫃은 갑골에서 해서까지 𠄎 - 𠄎 - 𠄎 - 𠄎 - 𠄎 - 㫃와 같이 演變 되었다. 𠄎(𠄎)의 左上 깃봉 ‘ㄩ’는 ‘ㄩ - ㄩ - ㄩ - ㄩ - ㄩ - ㄩ’로 演變 되고, 깃대 장식 ‘ㄷ’는 상부 필획은 方(㫃)의 일부인 ‘ㄱ’으로, 하부 필획은 㫃의 오른쪽 필획 ‘人’으로 연변 되었다.

㫃의 ‘方’으로의 연변은, 𠄎의 하부 𠄎의 豎劃 ‘|’를 왼쪽으로 彎曲되게 ‘J’으로 쓰고, ㄷ의 상부 ‘ㄷ’를 ‘ㄱ’으로 연변 시켜 ‘J’와 결합하여 ‘力’으로 쓰고, 여기에 깃봉 ‘ㄱ’을 結合 書寫한 것이 ‘方’이다. 그리고 ‘ㄷ’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hanyoun4860@hanmail.net

의 하부 ‘ㄷ’를 ‘方’의 오른쪽에 독립 서사한 것이 ‘𠄎’이다.

𠄎은 𠄎이 義符, 𠄎이 聲符로 ‘빛나다’가 본의이다. 금문에 𠄎으로 썼는데, 자형미를 위해 𠄎의 성부 𠄎(𠄎). 갑골문은 ‘𠄎’의 중앙 豎劃 ‘丨’을 하부로 이동 시켜 ‘𠄎’으로 쓰고, 벌어진 틈에 의부 ‘𠄎(𠄎)’을 書寫한 것이다.

𠄎의 𠄎으로의 자형연변은 𠄎을 ‘𠄎’과 ‘𠄎’으로 분리 서사한 것이다. 𠄎은 현재 ‘𠄎’로 쓴다. 𠄎에서 𠄎(𠄎)의 상부 ‘𠄎’는 ‘+’로, 𠄎의 하부 ‘一’은 𠄎대를 나타낸 ‘丨’와 결합하여 ‘+’로 서사하고, 日을 독립 서사 한 것이(+ + 日 + 十) 곧 ‘𠄎’이다. 여기에 𠄎대장식 ‘人(𠄎)’을 오른쪽에 서사한 것이 𠄎이다.

韓(韓), 翰, 幹, 韓, 韓 등은 聲符가 𠄎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韓(韓)은 金文 단계에서는 𠄎으로 쓰다가 소전 단계에서 韓(韓)으로 분화되어 古隸 단계까지 韓(韓)의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今隸 단계에서 𠄎의 오른쪽 필획을 생략하고 韓(韓)으로 썼다.

韓(韓)은 𠄎이 성부, 韋가 義符인 형성자인데 자원이 명확치 않다. 『說文』은 본의가 ‘井橋’라고 하였는데, ‘井橋’의 ‘橋’에 대해 ‘두레박,’ ‘두레박을 걸어놓은 가로막대,’ ‘우물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댄 나무’ 등 釋讀이 분분하다.

段玉裁는 ‘井橋’는 우물에 둘러쳐진 나무(井韓)에 ‘가로로 댄 횡목’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 횡목은 양쪽 기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끼워서 돌아가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물은 도르래를 횡목에 달아놓고 쓰는데(횡목은 고정), 고대에는 따로 도르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양쪽 기둥 구멍에 끼운 횡목이 돌아가게 하였다.

【주제어】 𠄎이 聲符인 형성자, 𠄎이 聲符인 형성자, 韓의 字源, 𠄎의 字形演變, 𠄎의 字形演變.

I. 序言

한자는 갑골문에서 해서까지 많은 자형변화가 있었다. 자형 변화가 클수록 인지가 어려운데, 자형변화가 큰 것은 대부분 2개 이상의 部件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혹은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演變된 것들이다.

㫃(깃발 언)은 갑골문에서 𠂇으로 썼다. 깃발이 펴져있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를 聲符로 한 形聲字는 대부분 자형 ‘㫃’이 아닌 제 1차 형성자 軛의 자형으로 구현되고 있어, 聲符는 물론 형성자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韓 역시 軛이 聲符인 형성자임에도 그 字源과 字形演變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는 갑골문 𠂇(㫃)의 字源을 考究하고 갑골문에서 楷書 㫃까지의 字形演變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㫃이 聲符인 1차 형성자 軛의 字源과 자형연변을 규명하고, 軛을 聲符로 한 형성자 韓(韓), 翰, 幹, 輪, 輜 등을 系聯하고 자원을 밝히고자 한다.

軛이 성부인 형성자의 자원은 『說文』을 중심으로 밝힌다. 軛이 성부인 형성자들을 系聯하고 다시 고증하는 것은,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생에서 전문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聲符字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同一 聲符를 具有한 형성자를 한데 모아 놓은 전적은 이미 존재한다.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이 그것인데, 이는 큰 범주로서는 성부자전이지만 갑골이나 금문 등의 고문자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성자 상호간 자형연변에 대한 설명도 없어 漢字學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1) 이 부분의 논문은 한연석을 비롯하여 강혜숙, 최주희 등이 발표하였다. 강혜숙은 「束을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 考」(2014), 「佳를 構件으로 한 字符 考」(2015)를, 최주희는 「部件 ‘口’와 ‘宀’의 書寫上 混用 樣相 考察」(2015), 「構件 宀과 舌의 同形化에 의한 難識 形聲字 研究」(2015)를 발표하였다. 한연석은 「異字同形, 近形의 聲符를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법 연구」(2010), 「根源聲符 丰, 各을 활용한 漢字指導法」(2010), 「六이 根源聲符인 形聲字 考」(2012), 「형성자의 聲符 難識 部件 考 - 聲符 市(저자 시), 市(슬갑 불), 市(무성할 발), 市(그칠 지)를 중심으로」(2014), 「耑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 考」(2014), 「彡가 聲符인 形聲字 考」(2015), 「聲符 難識 形聲字 考 - 賂, 輅, 牡, 谷을 중심으로」(2015)를 발표하였다.

하다.

대략 한자의 70% 이상이 형성자라고 한다. 이들 형성자의 가장 기본적인 聲符 - 根源聲符는 대략 2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 200개 내외의 근원성부 하나하나의 자원과 자형연변을 규명하고, 이 근원성부를 具有한 형성자를 한 데 모아 系聯하며, 이들을 한자학, 음운학, 훈고학적으로 고증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부자전은 아직 없다.

따과 이를 근원성부로 한 형성자들을 계련하고 자원과 자형연변을 밝히는 것은 성부자전 제작의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자원을 『說文』이나 段玉裁注를 중심으로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일반 자전에 명확하게 침투되지 않은 자원에 대해 다시 상기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본의에 대해서도 수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韓’같은 字符가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

현재 한자학 연구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갑골문을 위시한 각 字體 단계의 기초 字源 연구는 일단 마무리 되었다 할 수 있다. 지금은 간간히 기초 자원 연구를 토대로 선진시대의 천문, 기상, 음악, 농업, 정치, 경제 등의 2, 3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자학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갑골문에서 해서까지의 자형연변의 규명이 시급하다. 한문교사 및 한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원자전, 특히 자원과 자형연변을 함께 설명한 전문 서적을 갈구한다. 臺灣에서 출간된 形音義 사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몇몇 글자의 자원을 제시한 전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갑골에서 해서까지 자형만을 나열했지, 部件 하나하나의 자원과 자형연변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필자는 우선 형성자들만을 대상으로 根源聲符의 자원과 자형연변, 그리고 이들 근원성부를 共有한 형성자의 자원과 자형연변을 고구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부자전 생산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II. 㫃이 根源聲符인 형성자의 漢語文字學的 考察

1. 㫃의 字源과 字形演變

1) 㫃의 字源

㫃의 자원에 대해 허신은 『說文·㫃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㫃(㫃)은 깃발이 높이 펴려있는 모양을 나타내었다. 卍이 의미를 나타내는데 구부러져 아래로 드리운 모습을 그렸다. 그 드리운 모습이 서로 엇박자로 펴려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偃처럼 읽는다. 옛사람 중에 이름이 㫃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字가 子游이었다. 반절은 ‘於幟切(언)’이다. ‘㫃’은 古文 ‘㫃’자인데 상형으로 깃발이 펴려있는 모습을 그렸다.(㫃(㫃) 旌旗之游, 㫃蹇之兒. 从中, 曲而下, 垂㫃相出入也. 讀若偃. 古人名㫃, 字子游. 於幟切. 㫃 古文㫃字. 象形. 及象旌旗之游.)²⁾

허신의 ‘깃발이 높이 펴려있는 모양’이란 설명은 큰 틀에서는 옳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름이 㫃이라는 사람의 字 ‘子游’도 제시하였다. 游은 㫃이 義符, 汙가 聲符인 형성자로 깃발이 물 흐르듯 펴려있는 것을 나타낸다. 㫃의 깃발과 類義한 ‘字’를 인용하여 본의를 보충 설명하였다.

하지만 허신의 『설문』은 고문 㫃(㫃)과 소전 㫃(㫃)이 자형 차이가 없는데도 이들을 있다 하였고, 설명도 완성하지 못하다. 羅振玉은 허신의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解字』는 㫃에 대해 ‘旌旗之游㫃蹇之兒. 从中曲而垂下, 㫃相出入也. 㫃

2)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p.140. 이하 허신의 『說文解字』는 자형을 제시하는 부분 외에는 출처를 생략한다.

古文𠂔字. 象旌旗之游. 及𠂔之形.’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 함께 실어놓은 古文과 소전도 자형차이가 없다.(說文解字 𠂔, 旌旗之游𠂔蹇之兒. 从中曲而垂下, 𠂔相出入也. ㄱ 古文𠂔字. 象旌旗之游. 及𠂔之形. 其義頗難通. 又所載古文與篆文無異.)³⁾

羅振玉은 위 허신의 말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 수가 없고, 소전과 고문도 자형 차이가 없다고 한다. 羅振玉은 단옥재의 다음과 같은 교정을 따르면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하였다.

단옥재가 허신의 설명을 바로잡아 이르길 “從中曲而垂下, 𠂔相出入也’의 11자는 마땅히 ‘從小曲而下垂者游, 從入, 游相出入也’⁴⁾(中은 구부러져서 아래로 늘어진 것이 펠럭임, 오른쪽 부견 入은 깃발의 펠럭임이 서로 들락거림을 나타낸다.)’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정하면 그 설명이 대략 명료하다. 하지만 단옥재가 ‘𠂔자의 오른쪽 部件은 入자이다.’라고 한 것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段先生正之曰, ‘從中曲而垂下, 𠂔相出入也十一字, 當作從小曲而下垂者, 游從入, 游相出入也’語意略顯. 然謂𠂔從入, 尙未得)⁵⁾

羅振玉은 『설문』의 미진한 부분이 단옥재의 교정으로 해소됐는데, 아직도 단옥재가 𠂔자의 오른쪽 부견을 ‘入’이라고 한 것은 미진하다고 하고, 𠂔의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𠂔자는 글자 전체가 상형자이다. 갑골문에는 卜로 썼는데 옛 金文과 같은 모양이다. 卜에서 彳는 깃대를 그린 것이고, 꼭대기의 ‘ㄱ’는 장식을 매달아

- 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p.3055 재인용.
- 4) 羅振玉이 인용한 위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는 약간 출입이 있다. 단옥재는 『說文』의 ‘從中曲而垂下, 𠂔相出入也’의 11자를 ‘從中, 曲而下垂者游, 從入, 游相出入也’의 15자로 수정하였다. 羅振玉은 이를 ‘從小曲而下垂者, 游從入, 游相出入也’로 인용하였다. 원문의 ‘中’를 ‘小’로 썼는데, 이는 단옥재의 ‘아래로 들어져서 펠럭인다.(曲而下垂者游)’란 설명에 이끌려 ‘中’를 아래로 만곡 된 ‘小’로 쓴 듯하다.
- 5)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p.3055 재인용.

놓은 것으로, 이는 펠릭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단옥재는 ‘入’자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소전 자형은 이미 최초 글자를 만들 때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蓋㫃字全爲象形。卜辭作㫃，與古文同。㫃象杠，與首之飾㫃，象游形，段君以爲從入非也。蓋篆形既失初意，乃全不可知矣。)(殷釋中四十五葉下)⁶⁾

갑골문 㫃은 卜로 썼는데 가운데 㫃는 깃대를, ‘㫃’는 깃대에 달아 놓은 장식이 펠릭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의는 ‘펠릭이는 깃대’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考釋이다.

2) 㫃의 字形演變

<㫃의 字體別 字形表>

字體	甲骨文 ⁷⁾		金文 ⁸⁾			小篆 ⁹⁾	隸書 ¹⁰⁾		楷書
	古隸								
字形	㫃 ^{a)}	㫃 ^{b)}	㫃 ^{a)}	㫃 ^{b)}	㫃 ^{c)}	㫃	㫃 ^{a)}	㫃 ^{b)}	㫃

㫃은 본래 상형자이다. 갑골문에서 금문까지는 깃봉, 깃대, 깃대에 붙인 장식 등이 그대로 象形性을 띄고 있다. 즉, 아직 상형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아울러 자형이 2개로 분화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전단계에 이르러 자형이 ‘方’과 ‘人’의 두 개의 部件으로 演變 되었다.

6) 于省吾 主編, 앞의 책, 1996, p.3055 재인용.
 7) ㉑前5·5·7(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北京: 中華書局, 1965, p.289). ㉒三期 甲2647. 旅의 部件.(高明 編, 『古文字類編』, 北京: 中華書局, 1980, p.368.)
 8) 高明 編, 앞의 책, 1980, ㉑㫃爵, p.367. ㉒休盤, p.367. ㉓鏞印, p.367.
 9) 許慎, 앞의 책, 1963, p.29.
 10) 예서 단계에서 㫃을 獨體로 쓴 예를 찾을 수 없어 㫃이 部件인 ‘旄’의 자형을 참고하였다.(方述鑫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㉑睡虎地簡 53·26, p.457. ㉒孫臏199, p.457.)

이들이 두 개의 部件으로 분리되고, ‘方’형으로 演變된 것은 우선 갑골문 ㉞, 金文 ㉟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갑골문, 금문, 篆書에서 彎曲된 ‘ㄷ’와 같은 자형은 예서 단계에서 대부분 ‘一’과 같이 平直筆로 演變된다. ㉟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겪었다. ㉟의 ‘ㄷ’에서 ‘㉟’으로의 字形演變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깃봉 ‘ㄷ’의 ‘ㄷ’로의 演變

갑골문 ㉟의 左上 ‘ㄷ’는 깃발 꼭대기에 달린 깃봉의 모습으로, 갑골문에서 해서까지 ‘ㄷ(갑골문㉟) - ㄷ(금문㉟) - ㄷ(금문㉟) - ㄷ(소전) - ㄷ(예서㉟) - ㄷ(예서㉟) - ㄷ(해서)’로 연변 되었다.

(2) 깃대 장식 ‘ㄷ’의 演變

金文 ㉟의 깃대 장식 ‘ㄷ’은 ㉟에서 ‘人’과 ‘方’의 일부 필획으로 연변 되었다.

• ㉟의 오른쪽 필획 ‘人’으로 연변

깃대 장식 ‘ㄷ’의 하부 필획 ㄷ는 ㄷ(갑골문㉟) - ㄷ(금문㉟) - ㄷ(소전) - ㄷ(예서㉟) - 人(해서)로 연변 되어 ㉟의 오른쪽에 ‘人’과 같이 서사하였다. ‘人’은 ㉟의 왼쪽 부견 ‘方’과의 균형미를 위해 독립된 部件처럼 썼다.

• ㉟의 ‘方’의 필획 ‘ㄷ’형으로 연변

㉟에서 方은 다음과 같은 자형연변을 거쳤다. 우선 금문 ㉟의 상부 ㄷ는 문자 연변 규율에 맞게 ‘ㄷ’로 연변 되었다. ㄷ의 ㄷ는 平直筆 ‘一’로 연변 되고, 가운데 豎劃 ‘丨’과 함께 ‘ㄷ’로 연변 되었다. 그 다음 ㉟의 하부 ㄷ의 豎劃 ‘丨’는 약간 왼쪽으로 彎曲시켜 ‘ㄷ’로 쓰고, 장식 ‘ㄷ’ 가운데 상부의 ‘ㄷ’를 ‘ㄷ’로 연변 시켜 ‘ㄷ’와 결합 서사한 것이 ‘力’이

다. 다시 여기에 깃봉 ‘ㄷ’의 演變體 ‘ㄱ’를 결합 書寫한 것이 ‘方’이다.

㫃에서 ‘方’으로의 연변은 예서 단계에서 필순의 변화로 잠시 약간의 訛變이 있었다. 예서 ㉖를 보면 ‘方’의 ‘ㄱ’는 金文에서 깃봉을 나타낸 ‘ㄷ’의 연변체가 아닌, ㄱ의 豎劃 ‘丨’의 연변체이다. 대신 깃봉 ‘ㄷ(ㄱ)’는 ‘ㄱ’로 서사하여 ㄱ의 豎劃 ‘丨’의 연변체 ‘丨’의 왼쪽에 썼다. 이는 필순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2. 根源聲符가 㫃인 형성자의 字源과 字形演變

㫃(ㄱ)이 根源聲符인 형성자는 𠂇(깃대 천)¹¹⁾, 𠂇(빛날 간)이 있다. 𠂇을 성부로 한 형성자는 𠂇, 𠂇, 𠂇, 𠂇, 韓(韓) 등이 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𠂇, 𠂇, 𠂇, 𠂇, 韓(韓) 등에서 성부 㫃이나 𠂇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 이들의 자원을 『說文』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𠂇(韓)은 따로 자원과 자형 연변을 살펴본다.

1) 𠂇, 韓(韓)의 字源과 字形演變

韓의 정확한 자형은 ‘韓’이다. 聲符가 𠂇인 형성자이다. 金文 단계에서는 𠂇과 韓(韓)이 분화 되지 않았다. 𠂇의 본의는 명확하다. ‘㫃’과 ‘ㄱ’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빛나다.’가 본의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분화된 韓(韓)은 본의 파악이 쉽지 않다. 이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金文 단계에서 일정 시간 𠂇으로 썼기 때문이다.

(1) 𠂇(빛날 간)의 字源

『說文· 𠂇部』에 “𠂇(𠂇)은 해가 처음 나올 때 빛이 반짝 반짝 빛나는

11) 㫃이 근원성부인 형성자 가운데 자형 㫃을 유지하고 있는 字符는 𠂇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 義符로 작용하는 형성자 혹은 회의자는 거의 대부분 자형 㫃을 유지하고 있다.

것이다. ㄹ이 뜻을 ㄸ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古案切(간)’이다.(軌(軌), 日始出, 光軌軌也. 从ㄸ, ㄸ聲. 古案切.)”라고 하여, 본의는 ‘빛나다’라고 하였다. 아침 햇살이 빛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신의 ‘해가 돋다, 아침’이 나왔다. 軌의 자형 연변은 韓(韓)과 함께 설명한다.

(2) 韓(韓. 우물 횡목 한)의 字源과 字形演變

① 韓(韓)의 字源

韓(韓)은 軌(간)이 성부인 형성자이다. 『說文·韋部』에 “韓(韓. 韓)은 井橋이다. 韋가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그 사방을 빙 두른 모습을 취한 것이다. 軌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胡安切(한)’이다.(韓(韓. 韓), 井橋也. 從韋取其而也, 軌聲. 胡安切)”라고 하여, 본의가 ‘井橋’라고 하였다.¹²⁾

韓(韓)의 자형과 字義 釋讀은 비교적 복잡하다. 聲符의 일부 필획이 생략되고, 字義 역시 현대인들에게 생소하며, 아울러 韓이 본래 가리켰던 사물이 문명화에 따라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韓(韓)의 본의 ‘井橋’에 대해 段玉裁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㉔ 두레박

韓(韓)의 본의 ‘井橋’의 ‘橋’에 대해 「曲禮」와 『莊子』에서는 ‘두레박’이라 하였다.

「曲禮」‘奉席如橋衡’의 주에 이르길 ‘橋는 우물의 두레박으로, 가로막대 위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莊子』에 ‘나무를 파서 만드는데 뒤는 무겁게 앞은 가볍게 만들어 물을 뜨는데 마치 뽑아내는 것 같고, 빠르기가 넘치는듯하여

12) 허신의 『說文解字』에는 ‘井橋’를 ‘井垣’이라고 하였다. 段玉裁注를 따라 ‘井橋’로 수정하였다. ‘井垣’의 ‘井’은 ‘井’과의 자형 유사로 말미암아 誤한 듯하다. 또, 단 옥재는 垣이 아닌 ‘橋’임을 史書, 諸子書, 經書를 통해 고증하였다.(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236 참조.)

그 이름을 두레박이라 한다.'고 하였다. 槲는 본래 橋로도 썼다. 『說苑』에 이르기를 '두레박을 만들 때 그 뒤를 무겁게 하고 앞을 가볍게 하였기 때문에 이름 하여 橋라 한다. 終日 물을 퍼도, 수백 번 쉬지 않고 퍼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였다(曲禮 '奉席如 橋衡', 注曰, '橋井上挈舉, 衡上低昂者', 莊子曰, 鑿木爲機, 後重前輕, 挈水若抽, 數如 洗湯, 其名爲槲. 槲本又作橋, 說苑曰, 爲機重其後輕其前, 命曰橋. 終日漑韭, 百區不 倦)¹³⁾

위 설명을 따르면 韓(韓)의 '井橋'는 '우물의 두레박'을 나타낸다. 『說苑』은 두레박의 형제와 용도도 적시했지만 큰 틀에서는 두레박을 나타내었다.

㉞ 두레박을 거는 가로막대

韓(韓)의 본의 '井橋'의 '橋'에 대해 『淮南子』는 두레박을 걸어놓은 가로막 대라고 하였다.

『淮南子』 '今夫橋直植立而不動, 俛仰取制焉(지금 저 두레박 난간을 끈고 똑바로 세워 움직이지 않게 하고 두레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제어하게 한다)의 高誘 주에 이르기를 '橋는 두레박 위의 가로막대라고 하였다(淮南書, 今夫橋直植立而不動, 俛仰取制焉. 高曰, 橋, 桔臯上衡也.¹⁴⁾

高誘는 『淮南子』의 橋는 두레박을 거는 가로막대라고 하였다.

㉟ 우물에 댄 나무

지금 토목공사에 지하를 팔 때 'H빔'을 박고 여기에 나무를 가로 질러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옛날 중국도 우물을 팔 때 이와 유사하게 하였다.

'井韓(橋)'은 『史記』 漢武帝紀, 封禪書, 郊祀志, 枚乘傳, 『莊子』 秋水篇 등에 보인다. 이들 전적에서는 글자를 대부분 '井鞞'으로 썼다. 司馬彪가 이르길 '井鞞'은 '井闌'이 다 하였고, 崔譔은 이르길 '우물에는 네 귀퉁이에 가둥을 세우고 사면에 가로막대를 가로질러 흙이 몰려드는 것을 막는다(무너짐 방지). 마치 판축을 할 때 양변에 가둥을

13) 段玉裁, 앞의 책, 1988, p.236.

14) 段玉裁, 앞의 책, 1988, p.236.

세우고 판을 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晉灼은 이르길 '우물의 네 모서리의 기둥으로, 늘 물을 뜨는 사람에게 저촉되어 휘상이 된다.'고 하였다.(井韓, 見史漢 孝武紀, 封禪書, 郊祀志, 枚乘傳, 莊子 秋水篇, 其字多作井榦. 司馬彪云, 井榦, 井闌也. 崔譔云, 井以四邊爲榦, 猶築之有楨榦, 晉灼曰, 井上四交之榦, 常爲汲者所契傷)

‘井韓(橋)’은 『史記』 등 여러 전적에 보이는데 대부분 ‘井韓’을 ‘井榦’으로 썼고, 이들 전적의 주석자인 司馬彪, 崔譔, 晉灼 등은 ‘井榦’을 ‘우물에 댄 나무’라고 하였다. 즉, ‘井榦’은 우물을 파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서 보면 ‘井’자처럼 우물 바닥에서 지면까지 댄 나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㉞ 우물난간에 두레박을 거는 나무

단옥재는 위의 여러 주장을 참고하여 우물난간과 두레박을 거는 나무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井榦’은 ‘井闌’이라고 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井韓’은 나무로 사방을 빙 둘러 대는 것이고, 그 빙 둘러쳐진 정 중앙에 가로로 댄 나무를 橋이렇게 하면 ‘卍’자와 같은 모양이 된다.’라 한다. 아울러 양쪽 가장자리 나무에 구멍을 뚫고 축을 끼워 돌 수 있도록 만들고, 가운데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여기에 두레박줄을 달아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橋(들다)’라 하였지만 이는 ‘韓’을 나타낸 것이다(是諸家皆說井榦爲井闌, 按井韓爲木架四圍, 中其圍橫圓木爲橋(如卍字), 兩旁木有軸可轉, 中設鹿盧, 縣綆上下, 故言橋而韓見也¹⁵⁾)

단옥재는 ‘井榦’ ‘井闌’ ‘井韓’의 ‘榦, 闌, 韓’은 同源으로, 맨 처음 무엇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유사한 범주를 나타낸다고 한다. 榦은 본래 판축을 할 때(담장 쌓을 때) 양쪽 끝에 댄 나무를, 闌은 난간, 가로목을 나타내니 韓 역시 이들과 유사한 뜻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여, ‘井韓’은 나무로 사방을 빙 둘러치는 것이고(우물에 두레박을 걸기 위해 사면에 세운 기둥 등을 가리킴), ‘井橋’는 ‘井韓’의 나무에 가로로 댄 횡목인데, 이 횡목은 양쪽 기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끼워 넣어서 돌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15) 段玉裁, 앞의 책, 1988, p.236.

지금은 두레박을 거는 도르래를 횡목의 나무에 끼우거나 달아놓고 사용하는 데, 고대에는 도르래가 아닌 횡목을 양쪽 기둥에 끼우고 이 횡목이 직접 들게 하여 물을 길었던 것 같다. 단옥재는 양쪽 기둥의 정 중앙에 가로로 댄 나무를 橋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橋의 ‘도르래를 다는 횡목’이 도르래 역할을 하고, 도르래의 기능이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擧와 동원임을 염두에 둔 풀이이다. 擧와 橋는 상고음이 旁紐, 旁轉의 近音이다.¹⁶⁾ 단옥재는 同源 가능성으로 “橋는 陸德明의 『경전음의』에도 음을 ‘居廟反(교)’이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 뜻은 마땅히 ‘들다(橋擧)’와 같을 것이다.(橋陸音義音居廟反. 按其義當同橋擧也.)”¹⁷⁾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井橋의 모양이 ‘冪’字와 같다고 하였다.






단옥재는 韓(橋)은 두레박을 걸기 위한 橫木이라 하였다. 아침, 우물, 두레박, 도르래, 도르래를 걸기 위한 횡목, 우물 지하에 댄 횡목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문명해지면서 우물 난간에 가로 木을 설치하고 거기에 두레박을 걸어 사용하였다. 韓의 初文을 𣎵(빛나다, 아침)으로 쓴 것은 아침과 우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分化字 ‘韓’이 생산되면서 義符가 ‘韋’로 바뀌었다. 韋는 횡목에 도르래처럼 두레박줄을 거는 부분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② 𣎵, 韓(韓)의 字形演變

<𣎵, 韓(韓)의 字體別 字形表>

16) 擧는 上古音이 見紐 魚韻, 中古音이 見紐 語韻이고(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15.), 橋는 上古音이 群紐 宵韻, 中古音이 群紐 宵韻이다.(郭錫良, 앞의 책, 1986, p.164.)

17) 段玉裁(1988), 앞의 책, p.236.

字體	甲骨文	金文 ¹⁸⁾		小篆 ¹⁹⁾	隸書 ²⁰⁾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㉑ 	㉒ 				韓

𨾏(韓 韓)은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金文 단계에서 보인다. 韓(韓)과 같은 자형은 소전단계에서 보인다. 𨾏에서의 聲符 𠂔은 獨體로 쓸 때의 𠂔과는 다른 자형 연변을 추구하였다.

한자는 갑골문에서 해서까지 많은 변화 과정 중 일관되게 추구하는 원칙이 있다. 하나는 서사의 편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형미의 추구이다. 서사의 편리와 정형미의 추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추구하다보면 종종 한자의 理據(원리)도 무시된다. 위 金文 𨾏이 그런 경우이다. 금문 ㉑(𨾏)은 언뜻 보아서는 聲符가 𠂔임을 인지할 수 없다. 하지만 𠂔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結構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구별해 내기 쉽지 않다. 金文 𨾏(𨾏)의 성부 ‘𠂔(𠂔)’은 갑골문의 𠂔(𠂔)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문 ㉑(𨾏)은 義符 𠂔(𠂔)과 聲符 𠂔으로 구성되었다. 성부 𠂔은 위 𠂔의 자형연변에서 살펴보았듯이 갑골문 ‘𠂔’에서 깃발에 댄 장식 ‘ㄱ’을 ‘ㄴ’의 형태로 書寫하고, 이를 깃대를 가로질러 쓴 것이다. 그런데 𨾏(𨾏)은 義符 𠂔(𠂔)을 聲符 𠂔에 끼움 형식으로 結構하였기 때문에 義符(𠂔)와 聲符(𠂔, 𠂔)를 구분하기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성부의 자형도 獨體로 쓸 때의 𠂔과는 다르게 연변 되었다.

金文 ㉑(𨾏)의 자형을 분석하면, 우선 자형미를 위해 𠂔(𠂔)의 중앙 豎劃

18) 高明 編, 앞의 책, 1980, ㉑  羌鍾, p.233. ㉒ 韓八年戟, p.233.

19) 許慎, 앞의 책, 1963, p.29.

20) 方述鑫 等編, 앞의 책, 1985, ㉑ 旄의 부견, 睡虎地簡 53·26, p.457. ㉒ 旄의 부견, 孫贖199, p.457.

‘丨’을 두 개로 분리하여 한쪽을 하부로 조금 이동 시켜 ‘𠄎’로 쓰고, 그 사이에 의부 ‘ㄹ(旦)’을 서사한 것이다(𠄎). ‘𠄎’의 하부에 있는 堅劃 ‘丨’을 상부 ㄹ와 연결 서사하면 𠄎이 된다.

𠄎의 𠄎으로의 字形演變은, 𠄎의 오른쪽 필획 ‘ㄱ’은 본래 깃대 𠄎(𠄎)에 붙어 있는 장식이다. 금문 ①𠄎도 𠄎과 대동소이하다. 단, 旦의 하부 ‘一’과 깃대를 나타낸 ‘丨(하부에 있는 것)’을 결합시켜 외관상 ‘十(十)’로 보이게 쓰고, 이를 ‘日’과 결합하여 ‘𠄎’로 썼다. 이런 연변은 차후 𠄎(𠄎)의 상부 ‘ㄱ’의 演變體 ‘十’과 함께 ‘十 + 日 + 十’의 ‘𠄎’으로 연변 되는 계기가 된다. 𠄎에 깃대장식 𠄎(𠄎의 𠄎)가 人으로 연변 되어 오른쪽에 서사한 것이 𠄎이다.

韓(韓)은, 소전 韓과 古隸 韓에서는 아직 깃대 장식 ‘人(人)’이 오른쪽에 남아있다(韓). 그러나 今隸에 이르러 사라져 오늘날과 같은 韓(韓)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隸變 과정 중 韓으로 생략되면서 𠄎이 성부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𠄎’이 성부인 翰, 輪, 輪, 翰, 翰, 翰 등은 아직 그 필획이 남아있다.

㫃을 部件으로 채용한 형성자들은 㫃이 義符인가, 聲符인가에 따라 독특한 자형연변을 하였다. 자형 㫃을 유지한 형성자는 대부분 㫃이 義符로 작용한다. 예컨대 遊, 旄, 旌, 旗, 旆, 旆 등이 그것이다. 반면 㫃이 根源 聲符인 형성자는 대부분 1차 형성자 𠄎의 자형으로 구현된다. 韓과 아래에 열거한 翰, 翰, 輪, 輪, 翰 등이 그것이다.

2) 於 翰 輪 輪 輪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등의 字源

㫃이 근원성부인 於 翰 輪 輪 輪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翰 등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字源은 『설문』을 중심으로 살핀다.

(1) 於(깃대 천)

『說文·丨部』에 “𠂔(𠂔)은 깃발을 달아 놓은 깃대의 모양이다.丨과 𠂔이 뜻을 나타내는데, 𠂔은 소리도 나타낸다. 반절은 ‘丑善切(천)’이다.(𠂔(𠂔), 旌旗杠兒. 从丨, 从𠂔, 𠂔亦聲. 丑善切.)”라고 하여, 본의가 ‘깃대’라고 하였다.

(2) 翰(붉은 깃털 한)

『說文·羽部』에 “翰(翰)은 天雞(산 닭)의 붉은 깃을 나타낸다. 羽가 뜻을 𠂔이 소리를 나타낸다. 『逸周書』에 이르길 ‘文翰에서 마치 꿩처럼 생겼는데 다른 이름으로 鷗風이라고도 한다. 주나라 成王 때 촉나라 사람이 바쳤다고 한다.’라 하였다. 반절은 ‘侯幹切(한)’이다.(翰(翰), 天雞, 赤羽也. 从羽, 𠂔聲. 『逸周書』曰 ‘文翰, 21) 若翟雉, 一名鷗風. 周成王時蜀人獻之.’ 侯幹切.)”라고 하여, 본의는 ‘붉은 깃털’이라고 하였다. 흔히 쓰고 있는 ‘날개’는 引伸義이다.

(3) 翰(흰 꿩 한)

『說文·隹部』에 “翰(翰)은 翰鷗이다. 隹가 뜻을 𠂔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侯幹切(한)’이다.(翰(翰), 翰鷗也. 从隹, 𠂔聲. 侯幹切.)”라고 하여, 본의가 ‘翰鷗’이라 하였다. 이곳의 ‘翰鷗’은 새 종류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段玉裁注에는 翰과 翰은 각각 다른 것이라 하고 『說文』 鳥部の “翰鷗은 山鷗으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 아는 새(鳥部曰 翰鷗, 山鷗 知來事鳥也)”²²⁾를 인용하였다. 현재 山鷗은 일본에서는 ‘삼광조’를, 중국에서는 ‘피리새’를 가리키는데 어떤 새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²³⁾

21) 段玉裁는 大翰을 文翰이라 하였다.(段玉裁, 앞의 책, 1988, p.138.)

22) 段玉裁, 앞의 책, 1988, p.141.

23) 『漢語大詞典』은 “山鷗은 새 이름이다. 옛날에는 鷗이라고 불렀다. 우는 새 종류(鳴禽類)이다. 모양은 까치 같으나 색은 짙은 청색이고, 文彩가 있다. 부리도 문채가

(4) 鶡(살찐 닭 한)

『說文·鳥部』에 “鶡(鶡)은 살찐 닭으로 크고 길게 우는 놈을 가리킨다. 鳥가 뜻을 軫이 소리를 나타낸다. 魯나라의 郊祭에서는 붉은 닭으로 하여금 ‘꼬기오’ 길게 울게 하고 이르길 ‘이 붉은 깃털의 닭 울음소리로 서 노나라 제후의 허물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반절은 ‘侯幹切(한)’이다.(鶡(鶡), 雞肥鶡音者也. 从鳥, 軫聲. 魯郊以丹雞祝曰 ‘以斯鶡音赤羽, 去魯侯之咎.’ 侯幹切.)²⁴⁾라고 하여, 본의는 ‘살찐 닭’이라 하였다.

위 『설문』을 이해하기 위해 단옥재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옥재는 ‘雞肥鶡音者也’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曲禮에 ‘凡祭宗廟之禮雞曰鶡音(무릇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예물로 쓰는 닭은 길게 우는 놈을 쓴다.)’의 주석에 ‘鶡은 長과 같다.’라고 하였고, 정현의 正義에 이르길 ‘닭이 토실토실하면 그 울음소리가 길다.’고 하였다. 『주역』 ‘鶡音登于天(높은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에 대해 虞가 이르길 ‘鶡은 高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시경 小雅에 ‘鶡飛戾天(높이 날아 하늘에까지 닿았다.)²⁵⁾’의 毛傳에 이르길 ‘鶡은 高이다. 높이 나는 것을 이르길 鶡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고로 볼 때 소리가 높이까지 이르는 것을 또한 鶡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도 이르길 ‘鶡은 長과 같다.’라 하였으니, 길게 우는 닭이 곧 鶡인 것이다. 허신은 첩운으로 해석을 하였다(필자 주 : 鶡을 鶡으로 해석한 것은 소리가 같은 글자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曲禮 凡祭宗廟之禮雞曰鶡音, 注, 鶡猶長也. 正義曰, 雞肥則其鳴聲長也. 易鶡音登

있고 다리는 붉다. 머리 위에 하얀 벼슬이 있으며 꼬리는 희고 길어서 멀리까지 날지는 못한다.(山鵠, 鳥名. 古稱鶡. 鳴禽類. 狀如鵠而色深青, 有文彩, 彩嘴赤足, 頭上有白冠, 尾白而長, 不能遠飛.)(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제3책 p.797.)라고 설명하였다.

24) 『說文』 원문은 “鶡(鶡), 雞肥鶡音者也. 从鳥, 軫聲. 魯郊以丹雞祝曰 ‘以斯鶡音赤羽, 去魯侯之咎.’”이다. 段玉裁注는 이를 “鶡(鶡), 雞肥鶡音者也. 从鳥, 軫聲. 魯郊以丹雞祝曰, ‘以斯鶡音赤羽, 去魯侯之咎.’”로 수정하였는데, 雉는 雞로, 鶡은 鶡으로 수정한 것이다.(段玉裁, 앞의 책, 1988, p.156.)

25) 『詩·小雅·采芣』, “鶡彼飛隼, 其飛戾天.”의 毛傳에 “戾는 至이다.(戾, 至也.)”라 하였다.

于天, 虞曰, 翰, 高也. 按小雅翰飛戾天, 毛曰, 翰高也. 高飛曰翰, 因之聲高亦曰翰. 故鄭云翰猶長也. 翰音之雞爲之翰, 此許以疊韻爲訓也.²⁶⁾

단옥재는 「曲禮」, 『詩經』, 『周易』의 주석에 翰을 길다, 높다 등으로 考釋하였기 때문에, 위 『설문』의 翰은 翰이 옳다고 하고 翰을 翰으로 수정하였다(필자도 단주를 따랐다). 따라서 『설문』의 ‘雞肥翰音者也’는 ‘닭이 살지고, 크고 길게 우는 놈(翰)’을 나타낸다고 한다.

단옥재는 『설문』 원문의 ‘魯郊以丹雞祝曰 以斯翰音赤羽, 去魯侯之咎.’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魯 郊禮의 문장을 인용하여 翰音이 ‘肥雞’를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다른 본에는 翰을 翰으로 썼는데 잘못이다.(중략) 『五經異義』에 이르길 ‘노나라는 교제를 지낼 때 황제의 장수를 빌었다.’라 하였고, 『風俗通』 또한 ‘魯나라의 교제에는 늘 붉은 닭으로 꼬끼오 소리를 내게 하고 이르길, 이 높고 긴 소리, 붉은 깃으로 노나라 제후의 허물을 제거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此引魯郊禮文, 證翰音之爲肥雞也. 各本翰作翰, 誤(중략)五經異義曰, 魯郊祀祝延帝尸, 風俗通亦言魯郊禮常以丹雞祝曰, 以斯翰聲赤羽去魯侯之咎)²⁷⁾

위는 단옥재가 허신이 “‘翰音’이 ‘肥雞’를 가리킨다고 노나라의 郊祭를 들어 증명한 것”에 대해 보충 설명한 것이다. 단옥재는 『五經異義』, 『風俗通』에 등장하는 노나라의 교제를 소개하였다. 노나라는 교제를 지낼 때 翰(살찐 닭)을 사용하였는데, 이 닭으로 하여금 ‘꼬끼오’하고 울음소리를 크게 내게 하여 노나라 제후의 장수를 빌고 허물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翰은 일반 닭이 아닌 ‘붉고 살진 영험한 닭’을 나타내는 듯하다.

(5) 翰(짐승의 털 한)

『說文·毛部』에 “翰(鬣)은 짐승의 긴 털이다. 毛가 의미를 韋이 소리

26) 段玉裁, 앞의 책, 1988, p.156.

27) 段玉裁, 앞의 책, 1988, p.156.

를 나타낸다. 반절은 ‘侯幹切(한)’이다.(幹(𦍋), 獸豪也. 从毛軌聲. 侯幹切)”라고 하여, 본의는 ‘짐승의 긴 털’을 가리킨다.

(6) 𦍋(털이 긴 말 한)

『說文·馬部』에 “𦍋(𦍋)은 말이 긴 털을 가진 놈이다. 馬가 뜻을 𦍋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侯旰切(한)’이다.(𦍋(𦍋), 馬毛長者也. 从馬, 軌聲. 侯旰切.)”라고 하여, 본의는 ‘털이 긴 말’을 가리킨다.²⁸⁾

(7) 𦍋(자루 알)

『說文·斗部』에 “𦍋(𦍋)은 둥근 자루이다. 斗가 의미를 𦍋이 소리를 나타낸다. 양웅과 杜林은 모두 작은 수레의 바퀴라고 하였다. 반절은 ‘烏括切(알)’이다.(𦍋(𦍋), 蠡柄也. 从斗, 軌聲. 楊雄, 杜林說 皆以爲輶車輪𦍋. 烏括切.”라고 하여, 본의는 ‘둥근 자루’라고 하였다.

위 蠡柄의 蠡에 대해 단옥재는 ‘좀 먹다’가 아닌 ‘蠡’의 가차자라고 하였다. 그는 ‘𦍋’의 ‘蠡柄’이란 釋讀에 대해 “이곳의 蠡는 곤충이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가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어서 소리에 의해 (近音으로) 가차를 한 것이다.(此蠡非蟲齧木中, 乃本無其字依聲假借之字, 見瓢字下)”²⁹⁾라고 하고, ‘瓢’자에도 똑같이 ‘瓢, 蠡也(『說文·瓜部』)”라 釋讀하였다고 한다.

단옥재는 ‘瓢’의 주석에서 “한 개의 박을 두 개로 갈라 만든 표주박을 나타낸다. (중략) 蠡는 瓢로 쓰기도 한다.(一瓢蠡爲二瓢(중략) 蠡一作蠡)”³⁰⁾라고 하였다. 즉, 『설문』의 ‘瓢, 蠡也’의 ‘蠡’는 ‘瓢(표주박)’ 혹은 ‘蠡(가르다)’의 가차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단옥재의 설명은 𦍋이 자루가 아닌 물건을 두

28) 단옥재는 『설문』의 ‘馬毛長也.’를 ‘馬毛長者也.’로 수정하였다.(段玉裁, 앞의 책, 1988, p.463.)

29) 段玉裁, 앞의 책, 1988, p.718.

30) 段玉裁, 앞의 책, 1988, p.337.

개로 가른 것(표주박, 혹은 가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오해 할 수 있다. 단옥재는 허신이 瓢, 斡의 釋讀에 똑같이 ‘蠡’라고 한 것은 ‘蠡’ 혹은 ‘斲’의 가차로 ‘갈라서 만든 것, 혹은 가르다.’를 나타내지만, 모두 갈라서 만든 물건의 자루를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³¹⁾ 斡의 자루나 瓢는 사용할 때 사람이 잡고 運轉하기 때문에 ‘돌리다’란 뜻도 있게 되었다고 한다.

‘斡(斡), 蠡柄也’는 ‘斡(斡), 斲柄也’인데, 斡을 ‘자루’ 이외에도 ‘돌리다.’로 釋讀하는 근거를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을 갈라 표주박을 만들어 잔질할 때는 반드시 그 자루를 잡은 이후에나 물(술)을 뜰 수 있다. 그 자루를 잡고 움직이고 돌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斡이라고 하고, 인신해서 모든 자루를 잡고 움직이고 돌리는데 지도리가 되는 것을 斡이라고 한다.(判瓠爲瓢以爲勺, 必執其柄而後可以挹物. 執其柄則運旋在我, 故謂之斡. 引伸之凡執柄樞轉運皆謂之斡.)³²⁾

위 단옥재의 설명은, 斡이란 본래 손으로 잡는 것(자루, 지도리)을 가리키지만, 자루를 잡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斡의 ‘돌다.’란 뜻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斡은 일반적으로 ‘돌다’란 뜻으로 많이 알려졌다. 斡의 이러한 뜻으로부터 斡旋의 뜻도 운전하다, 주선하다, 조정하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8) 斡(耑木 간)

『說文·木部』에 “斡(斡)은 담을 쌓을 때 곧게 쌓도록 양쪽에 대는 나무이다. 木이 뜻을 斡이 소리를 나타낸다. 서현은 이르길 ‘지금 따로 斡대신 斡자를 만들어 쓰는데 옳지 않다. 화살대를 나타낼 때도 矢斡이라 쓰면 안 된다.(矢斡으로 써야 된다.)’고 하였다. 반절은 ‘古案切(간)’

31) 斡의 義符는 ‘斗’이다. ‘斗’는 갑골문에서 ‘斗(于省 冫 主編, 앞의 책, 1996, p.3233.)’로 썼는데, 이는 자루가 달린 용기 ‘말(10승)’을 나타내었다.

32) 段玉裁, 앞의 책, 1988, p.718.

이다.(榦(𦵏), 築牆耑木也。从木, 軛聲。臣鉉等曰, 今別作幹, 非是。矢榦亦同。古案切。)"라고 하여, 본의가 ‘耑木’이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耑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耑은 담장의 양쪽 끝을 가리킨다. 가령 담장을 쌓을 때 널빤지의 길이가 1장이면 담장의 길이도 1장이 되는데, 그 양쪽 끝에 박아놓은 나무를 榦이라 한다(耑, 謂兩頭也。假令版長丈, 則牆長丈, 其兩頭所植木曰榦)³³⁾

중국의 담장은 대부분 판축으로 쌓는다. 담장을 쌓을 때 판축을 위해서는 담장을 곧게 쌓을 수 있도록 담장의 양 끝에 곧은 나무를 박아놓고 여기에 맞춰 판축을 한다. 판축을 위해(혹은 돌로 쌓더라도) 박아놓은 나무를 榦이라 한다는 것이다. 耑의 본의는 ‘시초’ ‘실마리’이지만 후에 ‘端整하다’로 인식되었다. 이곳의 耑도 시초와 단정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9) 蕨(풀이름 간)

『說文·艸部』에 “蕨(蕨)은 풀을 나타낸다. 艸가 뜻을 蕨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古案切(간)’이다.(蕨(蕨), 艸也。从艸, 軛聲。古案切。)"라고 하여, 본의는 ‘풀이름’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풀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단옥재도 이곳에는 주석을 달지 않았다.

(10) 乾(오르다 건)

『說文·乙部』에 “乾(乾)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乙이 뜻을 나타내는데, 乙은 사물이 특정한 곳에 도달함을 나타낸다. 軛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渠焉切(건)’이다. 또 ‘古寒切(간)’으로도 읽는다. 乾은 籀文 乾이다.(乾(乾), 上出也。从乙, 乙, 物之達也, 軛聲。渠焉切。又古寒切。乾(籀文乾。)"라고 하여, 본의는 ‘위로 오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하

33) 段玉裁, 앞의 책, 1988, p.253.

늘’이란 인신의가 나왔다.

(11) 鞞(땅 이름 간)

『說文·邑部』에 “鞞(鞞)은 지명을 나타낸다. 邑이 뜻을 乾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古寒切(간)’이다.(鞞(鞞), 地名. 从邑, 乾聲. 古寒切.)”라고 하여, 본의가 ‘지명’이라고 하였다.

(12) 鞞(붉은 환)

『說文·赤部』에 “鞞(鞞)은 붉은 색을 나타낸다. 赤이 뜻을 鞞이 소리를 나타낸다. 浣처럼 읽는다. 반절은 ‘胡玩切(환)’이다.(鞞(鞞), 赤色也. 从赤, 鞞聲. 讀若浣. 胡玩切.)”라고 하여, 본의는 ‘붉은 색’이라 하였다.

(13) 漣(빨래할 한)

『說文·水部』에 “漣(漣)은 옷에 낀 때를 빠는 것이다. 水가 의미를 鞞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胡玩切(한)’이다. 漣도 漣과 同字이다. 성부를 이처럼 完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漣(漣)濯衣垢也. 从水, 鞞聲. 胡玩切. 漣漣或从完.)”라고 하여, 본의가 ‘빨래’라고 하였다. 漣은 聲符를 ‘完(漣)’으로 쓰기도 한다.

3. 沝과 이를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의 音韻考證

본의가 ‘깃대’인 沝과 이를 근원성부로 한 형성자의 음운을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 ㉠沝 上古音 元韻 影紐 上聲 中古音 阮韻 影紐 上聲
- ㉡鞞 上古音 元韻 見紐 去聲 中古音 翰韻 見紐 去聲
- ㉢鞞 上古音 月韻 影紐 去聲 中古音 末韻 影紐 入聲

- ㉔乾 上古音 元韻 見紐 陰平聲 中古音 寒韻 見紐 平聲
- ㉕幹 上古音 元韻 見紐 去聲 中古音 翰韻 見紐 去聲
- ㉖榦 上古音 元韻 見紐 去聲 中古音 翰韻 見紐 去聲
- ㉗箝 上古音 元韻 見紐 上聲 中古音 旱韻 見紐 上聲
- ㉘韓 上古音 元韻 匣紐 陽平聲 中古音 寒韻 匣紐 平聲
- ㉙翰 上古音 元韻 匣紐 陽平聲 中古音 寒韻 匣紐 平聲
- ㉚翰 上古音 元韻 匣紐 去聲 中古音 翰韻 匣紐 去聲
- ㉛瀚 上古音 元韻 匣紐 去聲 中古音 翰韻 匣紐 去聲³⁴⁾

上古音이, 㫃과 㫃이 직접 성부인 乾은 隣紐, 疊韻의 近音이다. 㫃이 根源聲符, 㫃이 直接聲符인 ‘乾, 幹(榦), 箝.....’ 등은 㫃과, 聲紐는 雙聲(乾, 幹, 榦, 箝), 旁紐(韓, 翰, 翰, 瀚)이고, 韻部는 疊韻(모두)이다. 즉, 乾은 ‘乾, 幹, 榦, 箝과는 쌍성 접운의 同音이고 ‘韓, 翰, 翰, 瀚과는 雙聲 旁紐의 近音이다. 㫃과 幹은 雙聲, 對轉의 근음이고, 幹과 기타 형성자와는 隣紐, 對轉의 근음으로, 위 형성자들은 㫃이 근원성부임이 음운학적으로 증명된다.

III. 結語

㫃(깃발 언)은 갑골문에서 ‘𠄎’으로 썼다. 깃발이 펴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본의 ‘깃발’을 나타내었다. ‘㫃’을 部件으로 채택한 형성자는 ‘㫃’이 聲符 혹은 義符냐에 따라 자형 차이를 보인다. ‘㫃’을 義符로 채택한 형성자는 대부분 자형 ‘㫃’을 유지하고 있다. 游, 旄, 旌, 旗, 旆, 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부로 채택한 형성자는 旂 정도만 ‘㫃’의

34) 郭錫良, 앞의 책, 1986, ㉑p.200, ㉒p.27, ㉓p.184, ㉔㉕㉖㉗p.185, ㉘㉙㉚㉛p.186.

자형을 유지할 뿐, 대부분 1차 형성자 𨾏의 자형으로 구현되고 있다. 韓(韓), 翰, 幹, 輪, 輶, 幹 등이 그것이다.

𨾏은 갑골문에서 𠄎로 썼다. 𠄎는 깃대를, 𠄎'는 깃대에 달아 놓은 장식
으로, 필력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본의 '나무끼는 깃대'를 나타내었다.

𨾏은 갑골에서 해서까지 𠄎 - 𠄎 - 𠄎 - 𠄎 - 𠄎 - 𠄎과 같은 자형연변을
거쳤다. 𠄎에서 '𨾏'으로의 字形演變을 살펴보면, 갑골문 𠄎의 左上 '𠄎'
는 깃봉으로 𠄎(갑골문) - 𠄎(금문) - 𠄎(소전) - 𠄎(예서) - 𠄎(예서) - 𠄎(해
서)로 연변 되었다. 깃대 장식은 𠄎(갑골문)에서 𠄎(금문)로 연변 되
었는데, 𠄎의 상부 필획은 方(𨾏)의 일부 필획 𠄎'로, 하부 필획은 𨾏의
오른쪽 필획 '人'으로 연변 되었다.

𨾏의 '方'으로의 연변은, 금문 ㉔의 상부 𠄎는 '𠄎'로, 하부 𠄎의 豎劃
'𠄎'는 약간 왼쪽으로 彎曲시켜 '𠄎'로 쓰고, 두 개의 장식(𠄎) 가운데 상부
의 '𠄎'를 𠄎'로 연변 시켜 豎劃 '𠄎'와 함께 서사한 것이 '力'이고, 다시
여기에 깃봉 '𠄎'를 결합 書寫한 것이 '方'이다. 그리고 𠄎의 하부 '𠄎'
를 '方'의 오른쪽에 '人'과 같이 독립 서사한 것이 '𨾏'이다.

𨾏은 𨾏이 성부인 형성자이다. 𨾏이 義符이고 𨾏이 聲符로 '빛나다'가 본의
이다.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은 𨾏으로 썼다. 金文 𨾏는 자형미를
위해 𨾏(𨾏). 갑골문은 𠄎'의 중앙 豎劃 '𠄎'의 일부를 하부로 이동 시켜
'𠄎'으로 쓰고, 그 벌어진 틈에 의부 '𨾏(𨾏)'을 삽입한 것이다.

𨾏의 𨾏으로의 자형연변은 𠄎'과 '𠄎'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𠄎'에서 의
부 𨾏(𨾏)을 제거하면 𠄎(𠄎)이 된다. 𠄎(𠄎)의 豎劃 '𠄎'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 𨾏(𨾏)을 서사한 것이 𨾏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𠄎(𠄎)의 상
부 '𠄎'는 '𠄎'로, 𨾏의 하부 '𠄎'과 깃대 '𠄎'을 결합하여 '𠄎'으로 서사하
고, 𨾏의 日을 독립 서사한 것이('𠄎 + 日 + 𠄎') 𨾏'이다. 여기에 깃대장
식 '人'을 오른쪽에 서사한 것이 𨾏이다.

𨾏(𠄎, 𠄎)이 根源聲符인 형성자 대부분은 韓(韓), 翰, 幹, 輪, 輶처럼

聲符가 㫃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韓은 㫃의 오른쪽 필획 ‘人’이 생략되어 성부 인식이 더욱 어렵다.

韓(韓)은 金文단계에서는 㫃(韓나라)으로 쓰다가 소전 단계에서 자형 韓(韓)으로 분화되어 古隸 단계까지 韓(韓)으로 썼다. 今隸 단계에서 성부 㫃의 ‘人’을 생략하여 서사 하였다.(韓)

韓(韓)은 성부가 㫃, 의부가 韋인 형성자이지만 자원이 명확하지 않았다. 회의 겸 형성으로 보이는데 『설문』은 본의가 ‘井橋’라고 하였다. 그런데 ‘井橋’의 ‘橋’에 대해 『曲禮』와 『莊子』에서는 ‘두레박,’ 『淮南子』는 두레박을 걸어 놓은 가로막대, 『史記』 등의 전적은 ‘井韓’을 ‘井榦’으로 쓰고 ‘우물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댄 나무’ 등 釋讀이 분분하다.

단옥재는 ‘井榦’ ‘井闌’ ‘井韓’의 ‘榦, 闌, 韓’은 同源으로, 榦은 판축을 할 때(담장 쌓을 때) 양쪽 끝에 댄 나무를, 闌은 난간 혹은 가로 목을 나타내니, 韓 역시 이들과 유사한 뜻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井韓’은 우물에 나무로 사변을 둘러치는 것이고(우물의 지상부분), ‘井橋’는 우물에 둘러쳐진 나무(井韓)에 ‘가로로 댄 횡목’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 횡목은 양쪽 기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끼워 돌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물은 도르래를 횡목에 달아놓고 쓰는데(횡목은 고정), 고대에는 도르래를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양쪽 기둥 사이 끼운 횡목을 돌아가게 하여 그 역할을 대신 한 듯하다.

단옥재가 이렇게 韓을 ‘우물의 횡목’으로 釋讀하는 근거는, 허신의 풀이 ‘韋가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사방을 빙 두른 모습을 취한 것이다.(從韋取其而也.)’에 주목한 것이다. 韋는 ‘두르다.’란 뜻이 있다. 단옥재는 ‘井韓’은 나무로 우물의 사변을 두르는 것이고, 이들 사변을 두른 나무 들 중 중간에 있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가로로 댄 나무’가 橋(이렇게 하면 ‘母’字와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한다. 橋는 양쪽 가장자리 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끼운 것으로 빙빙 돌 수 있다. 이 횡목의 가운데에 붙박이 도르래(바퀴 모양의 나무 등을 끼워 놓은 것)를 달고, 거기에 두레박줄을 걸어 사용하는데, 이것이 韓의

義符 ‘韋’의 ‘두르다 - 빙빙 돌다’를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韓의 본의를 井橋라 했느냐 하면, 橋가 ‘도르래를 단 횡목’을 나타내는데, 이의 기능이 두레박을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橋는 도르래가 달린 횡목이외에도 ‘들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橋를 擧, 擧와 同源으로 본 것이다.³⁵⁾

아침(軛의 인신의), 우물, 두레박, 도르래, 도르래를 걸기 위한 횡목, 우물 지하에 댄 횡목 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韓의 初文을 ‘軛(해가 빛남, 아침)’으로 쓴 것은 우물과 아침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이 문명해지면서 우물 난간에 가로 木을 설치하고 두레박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分化字 ‘韓’이 생산되었고, 義符 ‘韋’는 횡목의 빙빙 도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다.

㫃이 근원성부인 형성자는 於(깃대 천) 軛(빛날 간) 翰(붉은 깃털 한) 輶(흰 평 한) 輶(살찐 닭 한) 輶(짐승의 털 한) 輶(털이 긴 말 한) 輶(자루 알) 輶(耑木 간) 輶(풀이름 간) 乾(오르다 건) 輶(땅 이름 간) 輶(붉을 환) 輶(빨래할 한) 輶(韓. 우물 횡목 한) 등이 있다. 이들 중 輶의 耑木, 輶의 붉은 깃털, 輶의 살찐 닭, 輶의 자루 등은 일반적인 釋讀과 다른 단옥재의 고증이 돋보인다. 특히 輶의 ‘자루’라는 釋讀, 輶의 魯나라 郊祭를 통한 ‘살찐 닭’이란 釋讀은 청대 고증학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35) 王力은 “‘矯’와 ‘擧’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高’와 同源이다.(‘矯’, ‘擧’是向高處舉起, 故與‘高’同源)”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喬, 驕, 蹻 등도 ‘높다, 들어 올린다(擧)’의 音近義通의 同源字라고 하였다.(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2, p.204. 참조.)

<參考 文獻>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 高 明 編, 『古文字類編』, 北京: 中華書局, 1980.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方述鑫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5.
- 王 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2.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北京: 中華書局, 1965.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64.
- 許 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
- 강혜숙, 「束를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 考」, 『한문학논집』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_____, 「佳를 構件으로 한 字 符 考」, 『한문학논집』제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 최주희, 「部件 ‘口’와 ‘宀’의 書寫上 混用 樣相 考察」, 『한문학논집』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_____, 「構件 宀과 舌의 同形化에 의한 難識 形聲字 研究」, 『한문학논집』제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 한연석, 「異字同形, 近形の 聲符를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법 연구」, 『大東漢文學』第32輯, 대동한문학회, 2010.
- _____, 「根源聲符 丰, 各을 활용한 漢字指導法」, 『한자한문교육』2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 _____, 「六이 根源聲符인 形聲字 考」, 『中國語文學論集』第74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 _____, 「형성자의 聲符 難識 部件 考」 - 聲符 市(저자 시), 市(슬갑 불), 市(무성할 발), 市(그칠 지)를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_____, 「뫼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 考」, 『한문고전연구』제2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 _____, 「뫼가 聲符인 形聲字 考」, 『한문교육연구』제44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 _____, 「聲符 難識 形聲字 考」 - 賂, 輅, 牡, 谷을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제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Abstract

*Research on the Chinese Meaning-Sound Connected Letter Showing
'en(㫃)' as Sound / Han Youn-suk**

en(㫃) was written ‘㫃’ in gabgormun(甲骨文) as it displays feature of flags flapping . From gabgormun(甲骨文) to haeseo(楷書), en(㫃) have been changed in the order of ‘㫃 - 𠄎 - 𠄎 - 𠄎 - 𠄎 - 㫃’. gan(軫) which is divided into two parts - 旦(definition) and 㫃(sound) means ‘shine’. For more beautiful shape of the letters, they moved ‘丨’ which is middle of a 𠄎 down a little (𠄎), and wrote ‘㫃(旦)’ that represents ‘definition’ in a blank. That is 𠄎(軫).

gan(軫) of han(韓. 韓), han(翰), al(幹), han(翰), han(翰) represents sound. Of these letters, han(韓. 韓) was written as gan(軫) at kyummun(金文) stage. Next it was written as han(韓. 籛) at sojen(小篆) stage, and finally written as han(韓. 韓) at kyumye(今隸) stage. han(韓. 韓) which is consist of two parts - wuy(韋. definition) and gan(軫. sound) is the chinese meaning-sound connected letters(形聲字) It means ‘bucket,’ ‘a stick that hang a bucket’ and ‘an added tree to prevent a well from collapsing.’

【Key words】 `connected letters[形聲字] that have ‘㫃[en]’ as their phonetic part [聲符], connected letters[形聲字] that have ‘軫[gan]’ as their phonetic part[聲符], the Origin of 韓(han), a change in 㫃(en), a change in 軫(gan).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Prof of Kongju Univ. / hanyoun4860@hanmail.net